



광주시립미술관은 2023 문화도시광주전 '풍류, 한국의 맛'을 오는 30일까지 베트남국립미술관에서 연다.

<시립미술관 제공>



창작그룹 달빛오디세이의 '레퀴엠-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공연 장면. <달빛오디세이 제공>

'K-아트' 베트남을 물들이다

'풍류, 한국의 맛' 문화도시광주전 30일까지 베트남국립미술관 윤남웅 등 7명 작가 36점 전시

베트남은 한류 열풍이 거센 나라 중의 하나다. 베트남 외에도 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에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독특함을 영화와 드라마, 케이팝을 넘어 문화전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한류 열풍과 맞물려 광주의 미술 풍류, 정서를 베트남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2023 문화도시광주전 '풍류, 한국의 맛'이 오는 30일까지 베트남국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광주의 미술문화와 작가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해외에서 마련하고 있는 국제전이다.

김준기 관장은 "한류 콘텐츠 열풍의 현장에서 광주시립미술관이 전시를 선보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하노이 현지에서 한국 예술의 숨결이 널리 확산돼 베트남 문화예술계와의 교류가 더욱 촉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정서와 풍경 등을 담은 36점의 회화를 비롯해 조각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광주 작가를 국제무대에 소개해 문화예술 교류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 모두 7명. 윤남웅, 이형우, 표인부, 김병택, 김성남, 이인성, 김창덕으로 이들은 저마다 개성있는 작업세계를 펼쳐온 예술가들이다.

윤남웅 작가는 해학미가 깃든 작품으로 인간의 정을 담았다. 익살스러운 삶의 흔적과 시골 시장의 모습은 정취와 재미를 선사한다.

이형우 작가는 다채로운 색과 과감한 붓 터치로 은유적 표현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유평화면에서도 재치가 번뜩이는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한지를 소재로 작업한 표인부 작가는 독특한 한지 조각의 결을 초점화한다. '바람의 기억'으로 이름붙인 작품은 사유의 폭을 견인한다.

생명의 근원인 불, 반복적인 산의 형상을 대비시킨 김병택 작가는 상징성을 강조한다. 삶이 지닌 치유와 긍정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다.

김성남 작가는 인간의 관점보다는 원시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자연을 전면에 내세운다. 자연의 원초성, 인간의 근원성을 모티브로 삼았다.

인간을 소설의 한 구절처럼 표현한 작품도 있다. 이인성 작가는 삶속에서 마주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은유적 의미로 풀어냈다.

김창덕 작가는 독창적인 도화화로 멋과 감성을 선사한다. 석재와 돌가루, 자연색소 등으로 표현한 작품에는 한국적 풍류가 깃들여 있다.

한편 개막식이 열렸던 지난 3일에는 김창덕의 퍼포먼스 '도산의 달밤에 대화를 읊다'가 현지 하노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개막식에는 최승진 베트남 한국문화원장을 비롯해 원광석 하노이한국어교육원장, 흥선 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회장, 하노이 한인회 등 주베트남 한국대표기관에서 대거 참석했다. 특별히 전 주한 베트남대사 등도 참석했다.

최승진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장은 "베트남 국립미술관에서 전시를 개최하게 된 것 자체도 양국의 상호적인 문화적 교류의 상징으로 광주시립미술관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이형우 작 'Dogfather'



표인부 작 'Memory of the Wind-Spring'

박용철문학상 서용좌 작가 김현승문학상 이돈배 시인 정소파문학상 서연정 시인

올해 박용철문학상 수상자로 서용좌 소설가(전남대 독문과 명예교수), 김현승문학상 수상자로 이돈배 시인(송원대 명예교수), 정소파문학상 수상자로 서연정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2024년 문화예술창작지원금 1000만원과 상장이 각각 수여된다.

광주시는 최근 문화예술상 문학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올해의 박용철·김현승·정소파 문학상 수상자에 서용좌·이돈배·서연정씨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용좌 작가는 2002년 한국작가교수회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장편소설 '숨', '흐릿한 하늘의 해', '표현형' 등을 펴냈다. 제33회 팬문학상, 팬문학활동

상, 제8회 이화문학상을 수상했다. 서용좌 소설가는 "박용철문학상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앞으로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승문학상 수상자인 이돈배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황새의 눈', '궁수가 쏘아 내린 소금화살' 등의 작품집을 펴냈으며 한국현대시작품상, 영랑문학대상을 수상했다. 이돈배 시인은 "예상하지 못한 상을 받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도 "앞으로 더 정진 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 열심히 창작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용좌 소설가



이돈배 시인



서연정 시인

음악극으로 만나는 '오방 최흥종'

달빛오디세이, 융복합 공연 15일 광주예술의 전당 소극장

오방 최흥종은 '광주의 아버지', '무등산의 성자' 등으로 불린다.

광주 최초의 목회자이면서 YMCA를 창설한 교육운동가, 독립운동가로 평생을 약자 편에서 살았다.

창작그룹 달빛오디세이(대표 김현욱)는 오방 최흥종의 정신을 극화하는 융·복합음악극 '역압 받지 않는 정신-광주의 아버지 오방 최흥종'을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공연은 '변화', '실천', '자유'라는 세 가지 테마를 시간순에 따라 진행한다는 계획.

먼저 '변화'라는 주제와 맞물려 최흥종의 삶을 현대무용, 샌드아트, 챔버오케스트라와 영상 이미지로 보여준다. 광주 챔버오케스트라 연주.

최흥종은 1880년 5월 광주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 형을 잃고 19살 때 아버지마저 떠나 보냈다. 이후 미국 선교사 유진 벨을 만나면서 기독교에 입문했다.

이 '실천' 대목에서는 박애주의자로서의 최흥종을 다양한 장르에서 조명한다. 남성 2



오방 최흥종

중창, 흥동리무용단의 무용을 비롯해 음악과 언어를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인 '오이리트미 현대무용'을 볼 수 있다. 이의 드로잉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끝으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가사에 '오방(방기, 방종, 방일, 방랑, 방만)' 정신을 퍼뜨린 그의 삶을 '자유'라는 테마에 담아낸다. 공연 '오방'은 바리톤, 첼로, 마림극의 융복합 공연으로 채워진다. 합창에 영상 이미지가 결합된 '화광동진', 챔버오케스트라에 드로잉을 접목한 '별'도 볼 수 있다.

성악은 박선영(소프라노), 정성희(메조소프라노), 장재연(테너) 등이, 마림은 김호준이 맡았으며 샌드아트메이션은 주홍이 선보인다. 김현욱 대표는 "오방의 정신을 재조명해 현대적으로 계승, 승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라며 "그의 인류애와 박애정신이 광주 시민들의 삶에 깃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임방울국악상 본상에 모보경 명창

특별상 김승호

올해 임방울국악상 본상 수상자로 모보경(여·59) 명창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지역 대표적인 국악인 임방울의 예술 혼을 기린다는 취지에서 2000년부터 공적심사를 통해 뛰어난 국악인을 선정해 시상해 왔다. 수상자에게는 내년 문화예술창작지원금 명목으로 본상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보경은 서울 국악예고를 졸업하고 1983년 국립창극단에 입단, 2000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명창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이며, 국립극장에서 6시간 판소리 완창 공연을 총 3회(2009·2012·2021) 마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전북도립국악원에서 신식 춘향가로 일컬어지던 '정정례체 춘향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현재는 전북도립국악원에서 판소리 교수로 재직하며 국악 전승과 교육



본상 모보경



특별상 김승호

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전도유망한 45세 이하 국악인에게 수여하는 특별상은 김승호(42)씨가 차지했다. 상금은 500만 원.

김승호는 광주예고와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시립창극단, 전남도립국악단 등에서 활동했다. 제15회 임방울국악제 기약부(대상), 제33회 춘향국악대전 등 다수 대회에서 수상했다. 현재 김승호국악연구소 운영.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